



베트남 남부 해방 기념일

이달의 포커스 뉴스



베트남 경제, 올해 과연 V자 반등을 노릴 수 있을까?

-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백신여권 발급 등이 기대 요인

2P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을 시 회사의 손해배상 기준은?

30P

■ 베트남 해외시장뉴스 · 월간 뉴스 동향 · 프로젝트 동향	2
■ <팀코리아 참여기관 소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8
■ <기업탐방> 다인디자인	김동욱 법인장 20
■ <금융> FDI 기업의 자본금 및 외채 관련 규정 ..	홍현철 부부장 22
■ <법률> 개정 노동법 TOP 10 (feat: 취업비자) .	김유호 변호사 25
■ <세무> 근로소득세	조성룡 회계사 28
■ <노무> 근로자의 산업재해 시 손해배상 기준 ...	최지웅 변호사 30
■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동탑성>	33
■ 베트남 및 아세안지역 주요 경제 지표.....	40
■ <웹툰> FTA 활용 지원 시스템	45
■ 공지사항 및 사업안내	48





베트남 경제, 올해 과연 V자 반등을 노릴 수 있을까?

- 작년 2.91% 성장률로 총 GDP 규모 ASEAN 국가 4위 달성
- 올해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수출증가, 건설경기 활성화, 백신여권 발급기대 등으로 V자 반등 노려
- 진출기업은 코로나19發 긴축발작에 대한 리스크, 환경인식강화 및 디지털 경제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2020년 베트남은 GDP 성장률 2.91%를 기록하며 세계 경제가 팬데믹으로 침체한 가운데 성장을 이룩한 소수 국가 중 하나로 남았다. 경제 성장률은 1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Covid-19영향이 지속된 주변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성공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평할만 하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GDP 규모 3,430억 달러를 기록하며 아세안 경제 4위국가로 성장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베트남 경제를 이끄는 3대장점 : 풍부한 노동력, 적극적인 통상정책, 과감한 인프라투자

작년의 주요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최근 5~10년 대비 성장률보다는 다소 낮지만 외국인 투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또한, 국제교류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한 해였음에도 수출증가율 7%, 외국인 투자유치금액 285.3억 달러를 달성 할 수 있었던 것은 베트남이 투자 및 무역대상지로 높은 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은 V자 반등의 한해가 될 수 있을까?

상기 요인들로 인해 올 한해 베트남의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World Bank(6.8%), Asian Development Bank(6.1%), HSBC(7.6%) 등 다수의 국제금융기구들은 2021년 베트남의 성장률을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하였으며, 응우옌 쑹 푹 총리도 올 한해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을 6.5%로 설정하여 V자 반등을 암시했다.

2021년 베트남의 성장 드라이브

- 1) 제조업과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 2) 수출증가세 지속
- 3) 인프라 투자로 인한 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
- 4) 백신 접종에 따른 국제교류 재개 : 관광산업 활력 회복기대



(시사점) 우리 진출기업들, 올해의 성장요인 및 리스크 요인 함께 점검해야

코로나19發 긴축발작(Taper Tantrum)

작년 한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양적완화 수준으로 금리를 내리는 동시에 각종 유동성 공급책을 내놨고, 각국 정부는 대규모 지출을 강행했다. 그 덕분에, 전세계적으로 자산가격은 과열조짐을 보였고, 미국에서도 금리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비록, 미 연준에서 제로금리 유지를 예고했지만, 백신 보급으로 인해 경기가 다시 살아날 기대가 큰 만큼 예상보다 갑작스럽게 테이퍼링을 진행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만약, 주요 국가들이 유동성 회수를 위해 금리 인상을 강행할 경우, 베트남과 같은 신흥국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1) 확대 재정정책을 통해 Covid-19의 후폭풍을 처리해야함과 동시에 2) 달러 유출충격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도 함께 해야되기 때문이다.

저탄소 실천 및 환경인식 강화, 디지털 경제시대 맞이

Covid-19發 긴축발작이 대외적인 고려요소라면, 현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과 최근 떠오르는 이슈는 대내적인 고려 요인이다. 내부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강해진만큼 여러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고, 특히, 전세계가 ‘탄소제로’, ‘저탄소’로 움직이는 동향에 맞춰 베트남 역시 전력생산에 대한 정책을 크게 손보고 있다. 현지 정부에서는 화력발전 등 기존의 전통 발전방식 비율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비중을 확대할 제8차 전력개발계획도 조만간 발표 할 예정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프로젝트 설비에 대한 수입세 공제, 토지 사용료 공제 및 감면, 100KWh 이하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대출혜택 부여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있기에 소규모 발전 등을 바탕으로 전기 사용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미리 고민하면 투자비용 감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 규모 역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0년 140억 달러 규모에서 2025년까지 520억 달러로 매년 약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의 마케팅 전략에 '디지털'과 '온라인'을 빼놓을 수 없게 됐다. 베트남 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Facebook, YouTube, Zalo 등을 활용한다면 고객 접점을 늘림과 동시에 신속한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B2C거래가 위주인 소비재의 경우 Shopee, Lazada, Tiki 등과 같은 온라인 마켓으로 우선 진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수출증가, 건설경기 활성화 그리고 관광산업 재개에 대한 희망 등 올 한 해 베트남 경제를 이끄는 요소들도 있지만, 대외적인 리스크와 대내적인 이슈들은 진출기업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 만큼 진출 기회도 많지만, 진출 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여러 요인들을 고려한 진출전략 수립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베트남의 코로나19 백신 수급 현황

- 베트남 인구의 30%인 약 3,000만 명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확보
- 3월 17일 기준 2만 3,808명의 우선 접종 대상자 접종 완료

2021년 3월 8일 하노이와 호찌민, 하이즈엉성의 국립 열대병원에서 우선 접종 대상자인 의료진 250여 명을 대상으로 옥스퍼드-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최초 실시됐으며 3월 17일 기준 총 2만 3,808명의 우선 접종 대상자가 옥스퍼드-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보고 됐다. 베트남 보건부는 향후 전체 인구 약 9,800만 명 중 70%에게 보급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할 계획임을 밝히고 옥스퍼드-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외에 다른 해외 백신도 수급하면서 베트남 자체 개발 백신의 연구 및 생산 일정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전했다.

베트남의 백신 수급 현황

베트남 정부는 코백스퍼틸리티 지원백신, 국내 개발 백신을 포함해 총 1억 5,000만 회분(약 7,500만 명분, 베트남 인구의 70%)의 백신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까지 코백스퍼실리티의 지원과 베트남 백신센터(VNVC)의 구매로 확보된 분량은 베트남 인구의 30%(약 3,000만 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5,987만 회 분이다. 올해 2월 1차로 11만 7,600회 분량이 수입됐으며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수입된다. 베트남 정부는 1차 수급된 물량으로 3월 8일부터 우선 접종 대상자의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그룹 및 접종 계획 발표

지난 2월, 베트남 보건부는 코로나19 백신의 우선접종 대상자 11개 그룹을 선정해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의 우선접종 대상자는 ▲의료인 ▲외교관·세관·출입국관리소 직원 ▲방역관계자 ▲군인 ▲경찰 ▲교사 ▲65세이상 노인 ▲상하수·항공사·전기 등 필수사업장 직원 ▲기저질환자 ▲해외유학·취업 희망자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발생지역 주민 등 11개 그룹이다.

백신 접종 확인 여권으로 베트남 입국이 가능할까?

베트남 관광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수입 급감과 관광산업 종사자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베트남 정부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해외 관광객 입국 허용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3월 17일 베트남 총리는 관련 부처에 해외 백신여권 제도 연구 및 베트남 도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백신 여권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형태의 접종 증명서로 유럽연합(EU)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제도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현재 관광부에서 제안을 한 상태로서 최종 도입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보건부는 해외 국가의 백신 여권 도입 추세에 대해 보건부 웹사이트를 통해 공식적으로 보도했다. 보건부는 베트남에서 개인 건강 기록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 결과를 전산으로 관리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베트남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내·외국인 및 해외 입국하는 백신 접종자의 정보가 QR코드로 통합 관리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베트남 최대 국제공항이 온다

- 베트남 남부, 국제 물동량·방문객 증가해 국제공항 확장·이전
- 남부의 새 관문 ‘동나이성’에 교통 인프라 증축 활발

베트남 남부 동나이성(Đông Nai province)에 베트남 최대 공항인 롱탄 국제공항 (Long Thành International Airport)이 2025년 일부 개항한다. 개항 이후에는 호치민으로의 항공수요가 상당부분 이전 될 전망이다. 또한 롱탄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도로 및 물류 기반시설 구축 프로젝트도 활발한데 공항 건설 1차 작업이 끝나는 2025년부터는 베트남에서 재화와 인구가 움직이는 교통의 혈맥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 된다.

24년만에 첫 삽 뜬 베트남 최대 국제공항

롱탄 국제공항(이하 롱탄공항)은 현지 공항 건설 프로젝트 사상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롱탄공항 건설은 베트남 사회-경제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메트로 건설과 더불어 현지 정부가 주도면밀히 관리·감독하는 교통 인프라 사업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총 3단계에 걸쳐 2040년까지 완공될 계획으로, 모든 공사가 끝나고 공항이 정상 가동되면 연간 1억 명의 유동인구와 500만 톤 화물을 수용할 수 있다.

베트남 입국, 5년 후에는 호찌민시보다 ‘동나이’

롱탄 국제공항은 호찌민시 인근 동나이성에 소재한다. 호찌민시에서 벗어나 동나이에 새 공항 부지가 선택 된 주요 원인은 동나이가 물류(육로·해상), 군사, 관광 등에 있어 지리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찌민시 편선년 국제공항은 2030년까지 국제선과 국내선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시사점

올해 들어 베트남에서는 국가 중요 프로젝트로 분류되는 대형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추진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올 1월부터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롱탄 국제공항 프로젝트가 정부 승인 24년만에 개 시된 한편, 하노이 메트로(지하철)가 베트남 최초 개통을 앞두고 특정 구간의 시운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한 남-북 고속도로(국가 중요 프로젝트)의 중간중간을 잇는 도로 사업이 민관합작투자(PPP)로 탄력을 받았 고 호찌민시에서는 사이공강을 따라 항구 전면 재배치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BUDGET 2021

베트남 다낭시 2021년 예산안 주요 내용 및 경제 전망

- 2021년 경제 회복과 발전의 해로 지정, 세출입은 전년대비 약36% 감소
- 관광 회복과 하이테크·IT기업 유치를 통한 첨단산업도시로의 전환이 주요 목표

2020년 다낭시는 다소 부진했던 2019년의 경제 성장을 만회하기 위해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 23년 만에 최악의 경제 성적표(-9.77%)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다낭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올 한 해에만 12개의 투자 유치 웨비나를 계획하며 관광업에 치중된 경제구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올해를 '경제 회복과 발전의 해'로 선언하며 경제 회복 의지를 다지고 있다.

세출입 모두 작년에 비해 36% 축소

다낭시의 2021년 예산은 세입 17조 2330억 동, 세출 17조 5,900억 동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세출입 모두 약 36% 감소한 규모이다. 작년 다낭시 세입은 총 18조 9,598억 동으로 목표치의 70%에 그쳤다. 다낭시는 올해 역시 경제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세수 목표를 대폭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세출은 역대급 예산인 작년을 제외하고 2019년과 비교해봤을 때 단기 경상지출의 경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장기 개발 투자금이 약 25%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6% 목표, 완만한 경기회복 전망

다낭시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의 급격한 반등보다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12월 다낭시 인민위원회 호끼민 부위원장이 발표한 경기회복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다낭시 경제는 3분기에 들어서부터 본격 회복이 가능하며 서비스업이 4~5%, 공업 및 건설업이 7~8%, 농업 및 어업이 3~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회복과 환경 보존, 관광업 이외의 성장동력 발굴에 집중

다낭시 인민위원회는 작년 말 고급 리조트 중심의 지속 가능한 관광업 발전을 위한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등 관광산업 회복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IT 기술 활용 관광 앱 개발, 생태관광 상품 개발, 야간 경제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환경도시로의 건설'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으로 전기차 인프라, 태양광 발전, 폐수처리장 등 환경분야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낭시 인민위원회는 작년 말 2021년 투자 유치 산업 분야의 우선순위를 발표하였다. 우선적 유치 대상 산업은 ICT, 하이테크(SW, 생명공학, 전자공학, 정밀 엔지니어링, 환경 등), 지원산업, 관광, 헬스케어, 교육 등 고급 서비스업, 하이테크 농업 분야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이 주를 이루었다. 지난 3월 1일에 열린 총리 주재 '다낭의 개발 2030, 비전 2045' 회의에서는 폭 총리가 직접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관광산업 이외의 다른 성장 동력을 발굴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EV FTA, 한국산 원단 교차누적 적용 절차

- 3월 1일 이후 의류(61-62류)에 대해 한국산 원단 교차 누적 적용 가능
- 한국산 원단, 한-EU FTA 원산지 규정 충족 필요

베트남은 지난해 8월 1일 EU-베트남 FTA(이하 EV FTA)를 발효했으며, 그에 따라 베트남에서 EU로 수출하는 섬유제품의 77.3%가 5년 내 특혜관세 0%를 적용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7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EV FTA 이전, 베트남 의류 및 신발 제품의 유럽 수출 시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적용으로 9.6%의 관세가 부과되었던 것에 비해 상당한 혜택이다.

역외국 누적까지 인정하는 교차 누적

베트남은 EV FTA 적용 의류 제품(61류 62류)에 대해 한국산 원단의 교차 누적을 인정하고 있다. 교차 누적이 동일 원산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FTA 간 누적을 허용하는 것으로, 제3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역내산 원재료를 인정하게 된다. 한국산 원단의 교차 누적이 베트남, EU 집행위원회 간 교환 각서 마무리로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 가능하게 됐고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EU 수입 분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다.

'한-EU FTA'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증명서 필요

한국산 원단 교차 누적을 위해서는 한국산 원단에 대한 형식적 요건 구비도 매우 중요하다. 수출되는 원단은 한-EU FTA 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이를 협정상 규정된 원산지증명서로 입증해야 한다. 한-EU FTA 상 원단의 원산지로 결정받기 위해서는 ①역내 방적 및 직조 또는 ②수입 생지 날염가공(역내부가가치 52.5%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펄프, 부직포, 특수 직물 등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있으니 협정상 원산지 결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직접운송 필수

마지막으로 한국산 원단이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경우 베트남, 한국 이외 제3국의 경유 없이 직접 운송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만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된 후 운송될 수 있다.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아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한다.

시사점

베트남은 의류 생산에 투입되는 직물의 약 80%(2019년 기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이 2위 직물 공급국인 만큼 베트남-EU FTA 원산지 누적 조항이 '한국산 직물'에만 적용되면 중국, 대만 등 경쟁국 대비 한국산 직물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우리 진출 기업은 누적되는 한국산 원단에 대해서도 사후 검증에 대비해야 한다. 실제 EV FTA에서는 교차 누적이 대한 원산지 검증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향후 EU로 수출된 최종 제품의 FTA 원산지 검증을 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차 누적된 한국산 원단에 대해서도 검증에 대응할 수 있게 자료 준비 및 매 수입건별 형식적 요건 확인이 필요하다. 원산지 검증은 기업이 시리아에 역을 마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밀레니얼 세대를 공략하라, 명품시장 기회의 땅 베트남

- 2024년까지 베트남의 백만장자는 4만2,324명, 3천만 달러 이상 자산가는 753명 이 될 것으로 전망
- 호찌민·하노이 양대 도시 위주, 명품 시장의 주 고객은 밀레니얼 세대

베트남의 고소득층 현황

2018년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주요 6개국에서 약 6,000명의 부유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3분의 2는 40세 미만의 젊은 세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구매력을 가지고 명품과 프리미엄급 서비스를 폭넓게 향유하고 취득할 수 있는 계층”을 부유층으로 정의했다. BCG는 2018년에는 베트남에서 인구의 5%만이 부유층으로 분류되었으나, 2030년까지 베트남 인구의 16%가 부유층에 진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Knight Frank의 2020년 Wealth Report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1백만 달러(한화 약 11억 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백만장자는 총 2만5,727명이며 3천만달러(한화 약 340억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부유층은 458명, 1억 달러(한화 약 1,132억 원) 이상의 순자산을 소유한 사람은 5명으로 보고했다. 2024년까지 베트남의 백만장자는 4만2,324명, 3천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자산가는 753명, 1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자산가는 1명 증가한 6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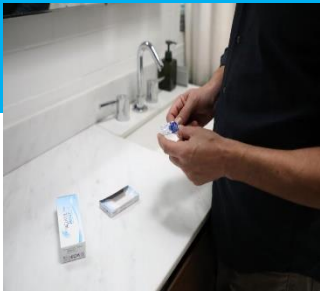
베트남의 명품 시장 규모 및 인기 품목

2020년 베트남의 명품 시장 규모는 2019년에 비해 5.8% 감소한 9억 7,400만 달러였다. Statista는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7.1% 성장한 11억 4,000만 달러 규모가 될것으로 추정하고, 2025년까지 연평균 7.17%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트남 명품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인기가 가장 높은 품목은 가방·지갑·벨트 등의 가죽 제품(29.4%)이다. 의류(25.5%), 시계 및 귀금속(21.3%), 화장품 및 향수(20.1%), 안경 및 선글라스(3.7%)가 뒤를 잇는다.

호찌민·하노이 양대 도시 위주, 명품시장의 주고객은 밀레니얼 세대

호찌민·하노이 양대 도시는 명품소비 추세가 다른도시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호찌민시 1군과 하노이 호안끼엠군에 위치한 명품매장들은 대형유통로 된 쇼윈도에 신상품을 배치하여 소비자들의 소비욕구를 자극한다. 유럽의 유명 명품 브랜드들은 베트남에서도 명품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10여년 전 만해도 베트남에서는 샤넬, 디올, 구찌 등 고전적인 명품브랜드의 인기가 높았으나 예전에 비하여 명품이 대중화 되면서 일부 부유층들은 더 비싸고 독특한 제품을 착용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알아볼 수 있도록차별화를 원하기도 한다. 베트남의 밀레니얼 세대들은 보수적이었던 기성세대들 보다 명품소비에 적극적이며 이들 중 일부는 전통적인 명품 브랜드의 명성에 기대지 않는다. 이들은 특정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낮고 한정판, 독특함, 유명 인플루언서의 해당명품 사용 유·무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베트남 콘택트렌즈 어디까지 왔니

- 밀레니얼 세대 중심으로 시력교정 인식 변화
- 소셜미디어, K-pop 영향으로 미용 목적 콘택트렌즈 관심 증대

콘택트렌즈가 보급되기 전 베트남인들은 시력 교정을 위해서 안경 착용이 필수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외모 가꾸기용 소비가 확대됨에 따라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콘택트렌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베트남 콘택트렌즈 시장 규모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Statista에 따르면 2021년 베트남 콘택트렌즈 시장 규모는 약 42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2021-2025년 사이 연평균성장률(CAGR)은 3.5%로 예상된다. 경제성장에 따라 문화, 스포츠 등 야외활동이 확대됐고 이는 편의성이 높은 콘택트렌즈 착용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베트남 콘택트렌즈 시장 현황

베트남 기획투자부 산하 기업정보등록 홈페이지에서 안경(mat kinh)으로 검색한 결과 호찌민시에 187개 안경점이 존재하며 콘택트렌즈 판매를 병행하고 있다. 베트남에 유통되고 있는 콘택트렌즈는 한국, 일본, 미국산 브랜드가 주를 이뤘으며, 대만산 제품이 뒤를 이었다.

콘택트렌즈 수출 시 유의사항

베트남 보건부 시행규칙(Circular) 39/2016/TT-BYT에 의거,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 중에서 그룹 2-B(저, 중위험)로 분류된다. 수입 콘택트렌즈(미용 컬러렌즈를 포함)가 베트남 현지에 유통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 30/2015/TT-BYT, 시행령(Decree) 36/2016/ND-CP에 따라 수입면장 또는 유통 등록번호 발급이 필요하다.

시사점

베트남에서 콘택트렌즈는 아직 보편화됐다고 하기에는 시기상조이나 젊은 인구와 시력교정 인식 변화에 힘입어 지속 성장단계에 있다. 한편, 경제 성장과 산업발전에 힘입어 국민 소득이 크게 제고됐다고는 하나 베트남은 여전히 개발도상국가로 가격에 매우 민감한 시장 중 하나이다.





베트남 차(茶)시장 공략 키워드는 '프리미엄-다양화'

- 건강음료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살아남은 베트남 차 시장
- 간편한 티백 및 독창적인 패키지 제품 인기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Statista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베트남 식품 및 식품서비스산업 매출은 2018년 동기 대비 34.3% 증가한 2,000억 달러에 달했다. 그 중 음료사업의 주를 이루는 것은 차와 커피 분야다. 하노이 및 호찌민시와 같은 대도시에는 Starbucks, Coffee Bean & Tea Leaf, Gong Cha, Royal Tea, Dingtea 등 다양한 해외 커피/차 프랜차이즈가 입점해 경쟁구도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 차(茶) 시장 동향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베트남 소비자들이 소비 습관을 검토하게 되면서 지출 자체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2020년 한 해 동안 베트남 소비재 관련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 차 판매량 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으나 건강음료 중 하나로 인식되는 차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베트남에서 차는 건강음료로 간주되며 면역 체계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음료 중 하나로 간주된다.

제품 유형 및 트렌드

2020년 즉석음료 시장의 경우 코로나19 여파에도 성장세를 기록했으나 '건강 및 웰빙 트렌드' 영향에 의해 높은 성장을 보이지는 못했다. 그러나 최근 칼로리 및 건강에 대한 현지 인식 변화로 무설탕 음료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소비시장 변화에 따라 무설탕 즉석 차 음료 등도 꾸준히 개발돼 판매되고 있다. 2019년 기준 베트남 MZ 세대(1980~2000년대 초 출생한 세대)는 전체 인구의 47.2%로 총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 차 시장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형태에서 보다 현대적인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전통적인 패키징 방식에서 보다 독창적인 패키징 등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시사점 및 진출 시 유의사항

베트남에서 흔히 판매되고 있는 한국산 차 종류로는 홍삼, 보리차, 옥수수차 등이 있다. 특히, 베트남에서 한국홍삼은 오래전부터 인지도 높은 제품군 중 하나였다. 차 문화 강국 중 하나인 베트남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다양성 외에도 독창적인 아이디어 및 마케팅 전략으로 승부할 필요가 있다.





▶ GS에너지, 롱안 성 30억 달러 규모 천연가스 발전소 사업자로 선정

베트남 정부는 롱안 성에 30억 달러(한화 약 3조 3,871억원)규모, 3,000 MW 발전 용량의 천연가스 발전소 건립을 승인함. 건설사는 한국의 GS에너지로 건설사 선정 부터 사업 운영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게 되며 베트남의 자금 운용사인 비나캐피탈은 GS에너지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자금 운영을 담당함. 롱안 산업단지 90헥타르 부지에 각각 1,500 MW 용량을 가진 천연가스 발전소 2기가 건설되며 1기는 2025년 12월, 2기는 2026년 12월에 완공 될 예정임.

[VN Express, 3. 22]

▶ 영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UKVFTA) 5월 1일 공식 발효

UKVFTA는 베트남과 영국간의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21년 1월 1일 부터 임시로 발효 된 바 있음. 베트남 정부는 3월 12일 영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을 승인하는 결정서 (31/NQ-CP)를 발행하고 3월 말까지 5월 1일 UKVFTA 공식 발효를 위한 절차를 완료 할 것이라고 밝힘. 베트남 관세총국에 따르면 올 1~2월 동안 베트남과 영국의 무역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0.05% 증가한 10억 2,400만 달러를 기록함

[Vietnam News, 3. 18]

▶ 한국 TV, 베트남 시장 점령

독일의 시장조사기관 GFK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삼성 TV는 베트남내 시장 점유율 44.7%(전년 동기 대비 점유율 2% 상승)를 차지하여 1위 자리를 지켰으며 소니는 25.9%(전년 동기 대비 -6.7%)로 2위, LG는 17.6%(전년 동기 대비 +3.8%)로 3위를 차지함. 하노이의 한 전자제품 판매 매장은 파나소닉 등의 TV 판매가 감소했으며 2년 전 부터 도시바 TV판매를 중단 했다고 밝힘. 과거 베트남 TV 시장의 강자로 군림했던 일본의 주요 TV 생산 회사들은 점유율 감소가 이어짐에 따라 사업을 축소하거나 전환하고 있음. 예를들어 파나소닉은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웰빙 가전 솔루션 비즈니스로 전환함.

[Vietnam Investment Review, 3. 18]

▶ '20년 동남아 전자상거래 플랫폼 트래픽 상위 10개 중 베트남 기업이 5개 차지

말레이시아 기반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업체 iPrice Group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동남아 전자상거래 플랫폼 트래픽 상위 10개 중 베트남 기업이 5개를 차지하며 현지 기업의 경쟁력을 증명함. 베트남 기업 5개는 The gioi di dong, Tiki, Sendo, Bach Hoa Xanh, FPT Shop이 차지함. 그 중 The gioi di dong이 동남아 전자상거래 플랫폼 트래픽 상위 5위를 차지함. 한편,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쇼피(Shopee) 및 라자다(Lazada)가 1, 2위를 차지함. 성장률은 2019년 대비 35% 급증한 싱가포르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는 필리핀(21%), 베트남(19%), 말레이시아(17%), 태국(15%), 인도네시아(6%) 순임.

[VN Express, 3. 17]



▶ 3월 18일 자정 부터 하이즈영 성 관할 3개 기차역 운영 재개

베트남 철도공사의 하노이-하이퐁 철도선 하이즈영 역 운영 재개 긴급 승인제안 (2176/BGTVT-VT)을 교통부가 승인하며 3월 18일 자정 부터 하이퐁-하노이 철도선의 하이즈영 성 관할 하이즈영역, 푸타이역, 감장역 등 3개 역의 운영이 48일 만에 재개됨. (1월 28일부터 금지)

[Dan Tri, 3. 17]

▶ 베트남 인터넷 요금, 동남아 최저 수준

영국 인터넷 및 통신 서비스 컨설팅 회사 Cable.co.uk가 전세계 211개 국가 및 지역 인터넷 서비스 요금을 비교한 결과, 베트남이 세계에서 12번째, 동남아시아에서는 가장 인터넷 요금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남. Cable.co.uk는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211개 국가 및 지역의 3,288개 고정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업체로부터 해당 자료를 수집했음. 베트남 평균 인터넷 서비스 요금은 월 11.27 USD임.

[Kinh Te Do Thi, 3. 16]

▶ 호찌민 편선넷 공항 제3터미널, 10월에 착공 예상

베트남공항공사(ACV)는 24개월 이내 완공을 목표로 올 10월 투자규모 총 4억 7,780만 달러의 호찌민시 편선넷 국제공항 제3터미널을 착공한다고 발표함. 국방부는 떠빈군에 16헥타르 면적의 제3터미널 부지를 정부에 양도해달라는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음. 3월 16일 기준 편선넷국제공항 제3터미널 건설사업은 타당성 분석이 완료된 상태로 완공 될 경우 연간 2천 만 명의 승객을 수송하고 제1터미널의 과수요를 분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Vietnam Investment Review, 3. 16]

▶ 베트남, 생산기업의 환경에 대한 책임 확대

베트남은 환경보호법(EPL)에 따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시행하기 위해 유럽연합(EU)와 협력 중으로서 2022년 1월에 발효예정인 신규 환경보호법은 EPR의 기본규정을 설정하여 제조업체가 부피 또는 제품 포장단위를 기준으로 규격 포장재를 사용하고 의무적으로 재활용 사양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제조업체는 폐기물에 대해 자체적으로 재활용을 하거나 베트남환경보호기금(VEPF)에 기부할 수 있음. 신규 환경보호법이 적용되는 분야는 배터리 및 축전지 생산 기업, 전기·전자 제품 생산기업, 타이어 및 튜브 생산기업, 운할유 제조기업, 자동차 및 오토바이 생산기업, 포장재 생산기업 등 6개 분야임.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11월 17일 베트남 국회에서 통과된 2020년 환경보호법 (LOEP2020)의 경우 환경 영향에 대한 예비평가규정이 2021년 2월 1일 부터 일부 발효되고 나머지 조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됨. 또한 신규환경법은 2014년 부터 시행된 환경보호법을 폐지하고 대체할 예정임.

[Vietnam Economic News, 3. 15]



▶ '21년 1~2월 베트남 휴대폰 및 부품 수출액, 전체 수출액 중 19.2%에 달하는 93억 달러 기록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 첫 두달 동안 베트남 무역 전년 대비 24.6% 증가한 958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함. 베트남의 수출은 전년 대비 23.7% 증가한 487억 4천만 달러를, 수입은 25.5% 증가한 471억 달러로 16억 4천만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함. 그 중 휴대폰 및 부품은 전체 수출액 중 19.2%에 달하는 93억 달러로 가장 큰 수출액을 기록함. 한편, 중국은 베트남에 173억 달러를 수출(전년대비 85.9% 증가)하였으며, 한국은 약 84억 달러를 수출(전년 대비 6.7% 증가)하여 2위를 차지함.

[Hanoi Times, 3. 15]

▶ 빈패스트, '21년 2월 자동차 판매 4위 기록, 포드·혼다 추월

베트남자동차생산자협회(VAMA)에 따르면 '21년 2월 자동차 판매량은 타코 기아가 5,769대를 판매하며 1위, 현대 TC 모터가 3,021대로 2위, 도요타가 2,411대를 판매하며 3위를 차지했으며, 빈패스트는 1,718대를 판매하여 1,281대를 판매한 혼다와 1,094대를 판매한 포드를 제치고 판매순위 4위를 차지함. VAMA는 2월 자동차 판매 대수는 총 1만 3,585대로 전년동기 대비 22% 감소 했으나 올 1-2월 동안 판매 대수는 총 4만 17대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고 밝힘.

[Vietnam Investment Review, 3. 13]

▶ HSBC: 베트남, 2021년 물가상승률 3% 유지할 것

HSBC는 2021년 2월 베트남의 물가상승률이 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며 이후에는 3%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함.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1년 2월에 전월 대비 1.52% 상승함. 전문가들은 음력설 연휴기간 동안 식품가격과 운송비가 상승하였고 베트남전기공사(EVN)가 1월에 전기세 보조금을 종료한 것을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분석함. 한편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인 환율은 2021년에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 한편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올해 목표로 연간 물가상승률을 4%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음.

[VN Express, 3. 11]

▶ 하이퐁시, 교통부에 띠엔랑 제2국제공항 제안

하이퐁시 인민위원회는 베트남 교통부에 띠엔랑(Tien Lang) 국내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변경하여 2021년-2030년 국가공항계획에 추가할 것을 제안함. 또한 기존의 하이퐁 제1국제공항으로 운영되는 깃바이(Cat Bi) 국제공항의 경우 2030년까지 연 1,300만 명, 2045년까지 2,760만 명의 승객을 수용하는 공항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교통부에 제출함. 하이퐁은 LG, Vinfast, Bridgestone을 포함 많은 제조기업이 위치한 도시로 향후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탄부-락후옌 고속도로, 하롱-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락후옌 항구 및 깃바이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모두 완성하면 하이퐁이 항구-공항-도로를 아우르는 국제물류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함.

[Vietnam Investment Review, 3. 9]



▶ 일본, 베트남을 비롯한 25개국에 4,100만 달러 규모의 백신 보관 시설 지원

3월 9일, 일본 외무성은 약 4,100만 달러 규모의 코백스퍼실리티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베트남과 동·서남아시아 총 25개국에 백신 보관 시설을 지원하기로 발표함. 이는 코백스퍼실리티·유니세프와 일본 정부를 통해 지원 대상국의 예방접종 시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백신 보관 냉장·냉동설비, 운송장비를 포함한 보관 시설 운송장비를 베트남 포함 총 25개국에 지원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국가는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동티모르, 부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쿡 제도, 피지, 마이크로네시아, 니우에,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바누아트, 투발루 등 총 25개국임.

[Tuoi Tre, 3. 9]

▶ 베트남 교육부, 제1외국어에 한국어·독일어 추가 전국 확대 시범운영

베트남 교육훈련부(MoIT)는 베트남 공립학교에서 한국어와 독일어를 제1외국어로 추가하는 시범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임. 그동안 베트남은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등을 제1외국어로 교육해 왔음. 교육훈련부는 일부 지방과 도시에서 한국어와 독일어를 제2외국어로 교육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한국어와 독일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림.

[Vietnam News, 3. 8]

▶ 하노이 삼성 R&D 센터, 2022년 12월 완공 예정

최주호 삼성 베트남 복합단지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하노이에 건설 중인 R&D센터가 2022년 12월 완공 예정이라고 밝힘. 베트남은 삼성에게 글로벌 생산 허브일 뿐 만 아니라 R&D의 중요 거점임. 2020년 한 해 삼성은 목표수출액인 600억 달러 보다 약간 낮은 570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했으며 2021년에는 회사의 코로나19에 대한 안전 확보와 생산 안정성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힘. Vietnam Investment Review는 2021년 3월 현재 삼성 베트남에는 약 13만 명의 직원이 6개 공장에서 근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함.

[Vietnam Investment Review, 3. 7]



▶ 한화생명, 베트남 대형 약국 체인 파마시티와 파트너십 체결

한화생명 베트남 법인은 베트남의 대표 약국 체인 중 하나인 파마시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500여개 파마시티 체인에서 한화 생명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한화생명 고객은 현금 결제 뿐 아니라 Momo Pay, VN Pay 등의 전자지갑 결제서비스를 통해서도 보험료를 결제할 수 있게됨. 또한 한화생명은 직원들을 위한 LIME 모바일 앱을 출시하고 채용, 정책관리, 직원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고객관리와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임. 한화생명 베트남 법인은 2020년 전년 대비 20% 증가한 총 1억 4,48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함. Vietnam Investment Review는 한화생명 베트남 법인이 2021년 3월 기준 전국 170개 지점에서 44,000명 이상의 보험 상담사, 45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60만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함.

[Vietnam Investment Review, 3. 4]

▶ 3월 8일 부터 해외에 본사를 둔 디지털 콘텐츠 기업에게 세금 추징

2020년 10월 19일에 공포한 조세행정법(126/2020/ND-CP)에 해외에 본사를 둔 디지털 콘텐츠 기업에게 세금을 추징하는 조세 행정법 개정령(06/2021/TT-BTC)이 오는 3월 8일 부로 발효 될 예정임. 개정령에 따르면 베트남에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현지 파트너와 함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기업은 베트남에 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간주 되며 이들 기업에게는 10자리의 세금코드가 부과됨. 따라서 해외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Facebook, Google, Netflix 등의 기업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거나, 온라인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함.

[관련 시행령 링크 : 06/2121/TT-BTC](#)

[Dan Tri, 3. 3]

▶ Big C, 베트남에서 22년 만에 Tops Market으로 사명 변경

Big C의 모회사인 Central Retail은 Big C 브랜드를 22년만에 접고 Tops Market으로 사명을 변경함. Central Retail은 올 3분기 안에 하노이에 있는 4개의 Big C 슈퍼마켓(The Garden, Ha Dong, Nguyen Xien, Le Trong Tan)도 Tops Market으로 전환 될 것이라 밝힘. Big C의 하이퍼마켓 계열사인 Bic C Hypermarket은 이미 2020년 12월 말 부터 GO! 브랜드로 변경을 완료했으며, Nha Trang, Binh Duong, Can Tho, Ha Long 및 Vinh Phuc에서는 변경된 이름으로 영업을 시작함. Big C는 1993년 태국의 TCC 그룹에 의하여 설립 되었으나 6년 후 TCC는 Big C를 프랑스의 Casino Group에 9억 2,000만 유로에 매각함. 2016년 부터 프랑스 카지노 그룹은 태국과 베트남에서 Big C를 매각하기 시작하였으며 설립 기업인 TCC가 카지노로부터 58.6%의 지분을 인수하여 다시 최대 주주가 됨. Central Group은 2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VN Express, 3. 3]



(입찰정보)

1. 발골 프로젝트 리스트

- 전력 MMS(시장관리시스템) 구축 및 SCADA/EMS 시스템 개선
- 베트남 중부지역 110kV 변전소 기자재 조달
- 하노이 서부 변전소(500kV) 건설
-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joohopark@kotra.or.kr)

2. 프로젝트 세부정보

- 베트남 중부지역 110kV 변전소 기자재 조달

발주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EVN CPC ○ 웹사이트 : cpc.vn ○ 연락처 : +84-236-2221-028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위치 : 중부지역(후에, 꽝트리, 꽝빈, 다낭) ○ 규모 : 약 8.5백만 달러 ○ 프로젝트 재원 : KfW ○ 프로젝트 단계 : 입찰서류 준비 중 ○ 입찰예정일 : '21. 4월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중부지역 전력망 확보 관련 기자재 조달 - 변압기, 1·2차 장비, IT관리 시스템, 전력망 케이블, 광섬유, 솔루션 조달 등 - 계약방식 : Fixed Unit Price

- 전력 MMS(시장관리시스템) 구축 및 SCADA/EMS 시스템 개선

발주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EVN ○ 웹사이트 : www.evn.com.vn ○ 연락처 : +84-24-6694-6789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위치 : 하노이 EVN 본사 ○ 규모 : 약 15백만 달러 ○ 프로젝트 재원 : 발주처 편당 ○ 프로젝트 단계 : 입찰서류 준비 중 ○ 입찰예정일 : '21. 5월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VN내 National Load Dispatch Center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 - 실시간 양방향 전력이동량 측정 가능 시스템 구축



(입찰정보)

□ 하노이 서부 변전소(500kV) 건설

<p>발주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National Power Transmission Corporation(NPT) ○ 웹사이트 : www.npt.com.vn ○ 연락처 : +84-24-2222-6666
<p>프로젝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명 : 하노이 서부 변전소(500kV)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위치 : ðồng Quang, Quốc Oai (하노이 서부 약 20km) ○ 규모 : 10백만 달러 ○ 프로젝트 재원 : 발주처 편당 ○ 프로젝트 단계 : F/S 단계 ○ 입찰예정일 : '21. 9월 ○ 세부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노이 서부지역 500k 변전소 신축 프로젝트 - 300MVA 변압기 3개 조합 통한 500kV-900MVA 변전소 건설 - 변전소 건설에 필요한 자재, 장비 및 부속품 공급 및 설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아세안지역본부(하노이지사)
박민철 본부장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사업을 통하여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업인의소득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특히, 갈수록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끊임없는 혁신으로 세계 200여 개국에 우리 농식품을 수출하고, 새로운 유통채널을 발굴하며, 선제적 수급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식품외식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공사는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농어업과 식품산업이 첨단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하고 우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아세안지역본부(하노이지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T 아세안지역본부(하노이지사)는 지난 2015년 5월 하노이지사로 설립되었으며 한국 농수산물식품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현지 수입바이어 및 유통업체 등과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한국 농수산물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판촉활동, 박람회 국가관 참가, 현지 소비자 이벤트 및 미디어 홍보는 물론 콜드체인, 공동물류 지원에 이르는 다양한 K-FOOD 지원사업을 현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K-FOOD 수출은 일본과 중국,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50% 수준으로 매우 높아 수출시장 확대 및 수출 체질 강화를 위해서는 대체 수출시장을 발굴하고 시장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에 현재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아세안 시장, 특히 젊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베트남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게 되었으며 아세안 지역 K-FOOD 수출의 컨트롤 타워로서 기존 하노이지사를 2018년에 아세안지역본부로 격상했고, 2019년 5월 베트남 호찌민지사를 신설하는 등 아세안 지역에 대한 농수산물 수출 지원체계를 확대 구축하였습니다.

최근 COVID 19 등으로 인해 aT도 사업 추진 여건의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2021년 사업 운영 방향이 궁금합니다.

우선 전반적인 베트남의 농식품 소비 성향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층이 두터운 베트남의 경우 다양한 신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농식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변화에 맞춰 금년도에는 베트남 유력 인플루언서 및 온라인쇼핑몰 등과 제휴하여 K-FOOD 라이브 커머스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베트남의 온라인몰 여건이 중국 등 인근 국가에 비해 아직 초기단계로서 결제 및 배송 등 라이브 커머스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시기에 시장을 선점하여 성공노하우를 축적하면 향후 한국 농식품 수출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금년도 목표인 한국농식품 수출액 81억불을 달성하기 위하여 베트남 중점 수출관리품목을 지정하여 물류지원부터, 판촉, 다양한 마케팅홍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호찌민에서는 코트라, 수협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K-FOOD Fair를 개최하여 한국 농식품 축제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며 기존 대도시 위주의 시장개척 활동을 2선 중소도시까지 확대하여 K-FOOD 소비 저변의 확대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저희 aT아세안 지역본부는 한베 양국의 농식품 수출입 뿐만 아니라 식량, 환경 문제까지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베 상호협력과 동반성장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고객만족도 최고 인테리어 디자인 기업, “다원디자인” 베트남 인테리어 수준 높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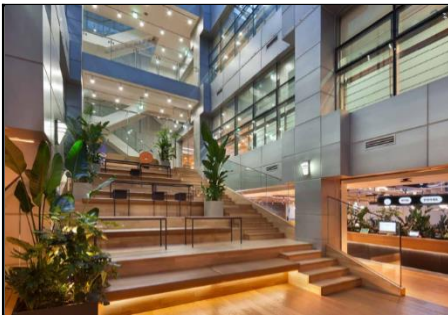
다원디자인 베트남 김동욱 법인장(상무)

다원디자인이 최고인 이유!

최적화된 Space Identity 전략을 통한 고객 효용가치 향상을 위해 설립된 다원디자인은 주요 글로벌 기업과 다양한 분야의 국내 고객에게 스페이스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에서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에 걸친 글로벌 스탠다드의 도입은 차별화된 브랜드 역량 구축에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다원디자인은 공간디자인 컨설팅부터 사후서비스까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다원디자인의 PM(Project Manager) 제도가 특화되어 있어 보다 전문적인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원디자인의 ‘SPACE’에 대한 철학은 공간 자체가 중심이 아닌 일관된 Identity의 구축과 고객 경험 관리를 통한 인간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고객과 공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은 다원디자인만의 진정성과 디자인 역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 현재는 건축, 전시, 브랜드 아이덴티티 분야까지 확대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AKAO 현장 사진



GUCCI KOREA 현장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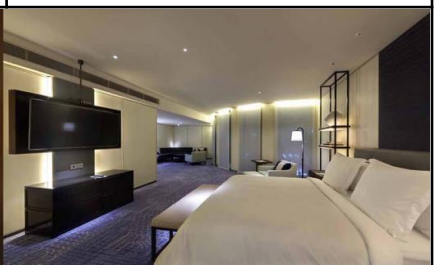
FACEBOOK 현장 사진



PARADISE BUSAN 현장 사진



FOUR SEASON 현장 사진





기업의 핵심요소

CORE VALUE		
<p>Keep it Simple...</p>	<p>Keep it Design...</p>	<p>Keep it Quality...</p>
<p>합리적인 사고와 간결한 프로세스로 효율성을 높이자</p> <p>버리고 또 버리자. 정곡을 찌르는 살아있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자</p>	<p>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평가하자</p> <p>객관을 움직이는 하나의 직관을 찾아라 - 문제해결도, 디자인도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p> <p>1%의 독특한 차이가 결국엔 100%의 큰 차이를 만든다 - 브랜드 가치를 쌓아가자</p>	<p>클라이언트에게 신뢰라는 무형자산을, 공간사용자에게 감동이라는 무형자산을 - 그게 진짜 프로다</p> <p>연구하고 연결하고 협력하여 최고의 프로가 되자</p>

“고객이 매번 다르듯 핵심도 다양하지만 가장 기본은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를 높이고 지향하는 목표에 닿을 수 있게 도와드리자입니다.

디자인적 핵심요소는 ‘Simple Design Quality’입니다. ‘Simple’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회사의 모든 경영과정도 간결하고 스피드 있게 진행한다는 것이고, ‘Design’은 우리의 실생활적 모든 상황에서 디자인적 감각을 키우고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Quality’는 디자인과 공사의 품질만이 아닌 직원 본인들의 실력적 품질, 대화적 품질을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2013년 설립한 다원비나 한국의 기술로 베트남 현지화!

다원비나는 다원디자인의 베트남 법인입니다. 다원비나는 2013년 베트남에 설립 되었지만,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이름을 많이 알려지 못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초심으로 돌아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원비나라는 이름을 알리기 위해 새로운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원비나라를 찾아주시는 모든 고객들에게 우수한 품질, 합리적인 단가, 빠른 속도 그리고 있을지 모르는 사후 서비스로 만족 고객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현지화에 임하겠습니다.

베트남 인테리어 고객만족도 1위 목표 ‘다원비나’

다원비나는 2021년부터 전략적으로 베트남에서도 이름을 알릴 계획입니다.

다원비나의 목표는 5년 내 베트남내 인테리어사들 중 고객 만족도 “1등” 이라는 슬로건으로 모든 고객들이 다원비나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다원 비나의 경영 철학인 우수한 품질, 합리적인 단가, 빠른 속도, 사후서비스를 떠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FDI 기업의 자본금 및 외채 관련 규정 안내

신한베트남은행 CIB 센터 홍현철 부부장

ttpple@shinhan.com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기업’ 으로 분류될 경우, 외화 차입/지분양수도 등과 같은 자본거래 시 준수해야 할 별도의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이에 따라 FDI기업의 정의에 대한 이해와 함께, FDI 기업이 준수해야 할 외환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관련 업무 시 보다 원활한 진행과 함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1.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기업의 정의

베트남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세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 될 경우 FDI 기업으로 분류된다.

- 1) 주주가 외국 투자자로 IRC를 발급받은 기업
- 2) 외국투자자가 지분투자/지분인수 및 인수 합병 등으로 최소 51%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 (베트남 현지 의 FDI 기업이 지분 51% 이상 보유한 기업은 FDI 기업이 아님)
- 3) 외국인 투자자가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ject 이행을 위해 설립된 기업

FDI기업으로서 준수해야 할 규정은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법률, Circular 등이 있을 것이나, 금융과 관련된 부분은 주로 해외로부터의 투자자금 조달(자본금 및 차입금)과 관련한 내용이다. 그 중 은행 거래 시 주로 이슈가 되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역외 차입(베트남 기업이 해외로부터 차입) 관련 규정

FDI기업이 해외로부터 차입을 받을 때는 먼저, ‘자본금계좌(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통상 ‘DICA’로 부름)’ 가 어느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자본금 계좌’는 베트남 기업이 투자대금 (자본금 및 차입금)을 송금 받기 위한 전용 계좌로, FDI 기업은 기업 설립 시 자본금을 수금 받기 위해 반드시 이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한편, 역외 차입은 그 기간이 1년 이하는 단기 차입, 1년 초과는 중장기 차입으로 구분되며, 1년 초과 차입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USD1천만불 이상 : 하노이 중앙은행, 1천만불 미만 : 각 지방 성 중앙은행 승인사항)



역외차입 관련 다양한 경우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본금 계좌’ 이외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용하는 계좌가 FBRA(Foreign Borrowing & Repayment Account) 이다. 예를 들어 1년 이하의 단기차입금은 FBRA를 통해 입금을 받을 수 있다. FBRA는 ‘DICA’와 달리 여러 은행에 복수의 계좌 개설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해외의 복수의 은행으로부터 단기차입을 받을 경우, 해당 은행의 베트남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차입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DICA와 다른 이종통화의 차입을 중장기로 받는 경우에도 FBRA로 차입금을 수령하는 것이 허용된다.

[참고] 은행 제출 서류 안내

업무별	은행 제출 서류
타발송금 입금 시 (해외에서 자금수령 시)	1) 외채 계약서 2) 중앙은행 신고서 (1년이상 중장기인 경우) 3) Confirmation on Source of Fund (은행 양식)
상환 시 (해외로 자금 송금 시)	1) 외채 계약서 2) 중앙은행 신고서 (1년이상 중장기인 경우) 3) 입금처리 영수증 (은행, 시스템 확인 가능) * DICA 계좌 혹은 FBRA 계좌에서 (관련 타발송금 입금계좌) 송금

※ 중장기일 경우, 중앙은행에 신고 필수

3. 법인 지분양도를 위한 송금절차

베트남에서도 한국에 비해 활발하지는 않으나, 기업의 지분 매매, 인수/합병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 시, 대상기업이 FDI 인지 여부, 매매 당사자(지분 매도/매입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서 업무 절차가 구분된다.

1) 대상 기업이 FDI 기업인 경우,

해당 거래가 거주자-비거주자 간에 이루어질 때(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지분 양도시), 대상기업의 DICA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매입자 → 대상기업 DICA로 송금 → 매도자에게 송금)

반면 지분양도가 비거주자 간, 또는 거주자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DICA를 통하지 않고, 매입자가 매도자에게 직접 송금하면 된다.

이는 FDI 기업의 경우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 또는 해외로 자본 유출 과 관련하여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당국의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대상기업이 Non-FDI 기업인 경우,
매입자는 매도자에게 직접 송금을 하면 된다. 다만, 양수도 당사자 중 비거주자가 있는 경우, 해당 비거주자는 IICA(In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Non-FDI 기업의 지분 매입 시, 매입자인 비거주자의 IICA에서 매도자인 거주자의 DDA (Demand Deposit Account_일반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4. 자본금 증자 대금 수령시(해외로부터 송금 내도) 업무 절차

자본금 증자 대금이 해외로부터 송금되면, 대금이 내도 된 은행의 해당 지점에서는 수취인(기업)의 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IRC(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를 제출 받고, 내도 금액이 각 서류상의 자본금 범위 내의 금액인지를 확인 후 고객 계좌에 입금처리 한다.

이때 해당 기업은 증자 프로세스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ERC/ IRC 상의 자본금이 수취하고자 하는 금액(누적 금액) 보다 적은 상황으로, 은행에서는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계좌에 입금처리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에서는 증자 대금이 은행에 내도 시 계좌에 입금처리 하기 전, 송금내역과 함께, “ERC 변경 후 관련 서류 제출시 입금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Confirmation Letter를 발급해 준다. 해당 기업은 동 Letter를 기획투자국(Department of Planning & Investment)에 제출 하고 증자와 관련한 ERC 및 IRC 변경을 진행할 수 있다. 이후 변경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증자대금을 계좌로 수령한다.

FDI 기업의 자본금 유출입과 관련한 이슈는 중앙은행에서 관심을 두고 시중은행들을 감독하는 분야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 또한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다소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며, 때로 불가피하게 기업들에게 불편이 초래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은행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원활한 업무와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끝>



한눈에 보는 개정 노동법 TOP 10 (feat: 취업비자)

로투비 Law2B | 대표 김유호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변호사 | 파산관재인 | 중재인
ceo@law2b.kr | +84(0)90 438 7074

(1) 수습 기간

개정 노동법	구 노동법
관리자(manager)에 대한 수습 기간은 180일까지 가능	6 ~ 60일
한 달 미만의 근로자는 수습 기간이 없음	계절적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는 수습을 하지 못함

(2) 초과근무 시간

개정 노동법	구 노동법
1개월 최대 40시간으로 증가	1일 12시간, 1개월 30시간
1년 200시간 (300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한 산업, 작업, 상황을 노동법 제107.3조에 명시. 성급 인민위원회 노동관서에 서면신고 요)	1년 200시간 (정부가 규정하는 특별한 경우 300시간)

(3) 근로 계약형식과 종류

개정 노동법	구 노동법
서면. 전자 근로계약서도 근로계약서로 인정	서면. 전자 근로계약서에 대해 언급 없음
12개월 미만의 계절적 작업에 대한 근로계약 형태를 삭제하고, 유한 계약(최대 3년)과 무한 계약의 두 가지 형태만 가능	12개월 미만의 계절적 작업, 유한 계약(최대 3년)과 무한 계약의 두 가지 형태만 가능
장년층(elderly)의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와는 유한 근로계약을 체결 횟수 제한 없음	유한 계약은 최대 2회 (즉, 최대 1회 연장)
부록을 통한 유한 계약의 연장 삭제	부록을 통한 유한 계약의 연장 가능



(4) 근로계약 해지

개정 노동법	구 노동법
근로자가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5일 이상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결근 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 가능	근로자가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규정은 없음
근로자의 일방적 해지: 법률상 사유 불필요 + 사전통보 유한 계약: 30일 전 / 무기 계약: 45일 전	근로자의 일방적 해지: 법률상 사유 필요 + 사전통보 12개월 미만의 계절적 작업: 3일 전 유한 계약: 30일 전 / 무기 계약: 45일 전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 당국의 추방 결정, 노동허가 만료 등에 의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됨	베트남 당국의 추방 결정, 혹은 노동허가 만료로 인한 자동적 계약 해지에 대한 규정 없음

(5) 정년

개정 노동법	구 노동법
2021년부터 점진적으로 상향하여 남성은 2028년에 62세, 여성은 2035년에 60세로 연장	남 60세, 여 55세

(6) 급여지급 및 지연이자

개정 노동법	구 노동법
15일 이상 급여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함	급여 지급 지연은 최대 1개월

(7) 불시 근로감독

개정 노동법	구 노동법
사전통보 없는 근로감독관의 근로감독 권한 명시	불시 근로감독에 관한 내용 없음

(8) 여성·양성평등·성희롱

개정 노동법	구 노동법
여성 근로자에 대한 특별 규정'에 '양성평등'을 추가	여성 근로자 사용이 금지된 업무: 임신·육아에 부정적 업무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노동법에 명시	사회보험법 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도입되었으나, 그에 대한 노동법의 규정은 없음
정의 조항에 '직장 내 성희롱(sexual harassment)' 추가. ILR(취업규칙; 내부근로규정; 노동내규)에 명시해야 함	직장 내 성희롱 조항의 내용은 여러 조항에 부분적으로 존재하나,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규정은 없음



(9) 노동허가서

개정 노동법	구 노동법
노동 허가서의 연장을 1회, 최대 2년만 허용; 1회 연장 후에는 다시 새로 노동 허가를 받아야 함	노동허가 연장에 대한 언급 없음

(10) 비자

개정 노동법	구 노동법
투자 액수에 따라 유효한 기간이 다른 다양한 종류의 비자를 발급	모든 투자자 및 변호사는 유효기간 최대 5년의 DT 비자를 발급
외국인 투자자와 그 가족, 전자비자로 입국하거나 베트남에서 취업한 외국인이 베트남 내에서 취업비자 등으로 방문 목적을 변경할 수 있음	베트남에 입국한 후 비자의 종류를 변경하려면 일단 다른 나라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해야 함

비자 종류	(일부) 개정 출입국법 (Law 51/2019/QH14)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	출입국법 (개정된 부분 외에는 현제도 유효) (Law 47/2014/QH13)
외국인 투자자 (DT 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 금액에 따라 D1~D4로 나누어 발급 비자 최대유효기간 변경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T1 (1000억동(약 50억원) 이상 또는 투자혜택/장려분야 투자): 5년 [거주증 10년] - DT2 (500~1000억동(약 25~50억원) 또는 장려분야 투자): 5년 [거주증 5년] - DT3 (30~500억동(약 1억5천만~25억원)): 3년 [거주증 3년] - DT4 (30억동(약 1억5천만원) 미만):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 변호사에게 발급 비자 최대 유효기간: 5년 임시거주증 최대 유효기간: 5년
베트남에서 일하기 위해 온 외국인 (LD 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D1: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중 노동 허가증 면제자에게 발급 LD2: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중 노동 허가증이 필요한 자에게 발급 	베트남에서 일하기 위해 온 외국인에게 발급
베트남 내 회사와 일을 하는 외국인 (DN(상용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DN1: 베트남 법에 따라 합법적인 지위를 가진 베트남 기업 및 단체와 일하는 외국인에게 발급 DN2: 베트남이 서명한 국제 협약에 따라 베트남에 서비스를 제공, 상업적 주재, 또는 기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발급 	베트남 내 회사와 일을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



근로소득세

서우회계법인베트남 조성룡회계사
csrgs@seouvietnam.com | 098-548-7377

금번에는 근로소득세 중 과세대상 근로자에 대해 개관하겠습니다.

근로소득세

베트남 근로소득세법상 1년 기간 중 183일 이상을 베트남내 거주하거나, 입국일 이후 12개월의 기간동안 183일 이상을 체재하거나, 또는 항구적 주거를 베트남내에 가진 경우(외국인의 거주증에 기재된 주거지를 포함)는 베트남의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아울러, 183일 이상의 임차한 주거지를 가지나, 그 개인이 타국가 거주인임을 소명하지 못하면 베트남의 거주자로 간주됩니다(거주자의 정의는 조세조약과 베트남의 관련 circular를 통해 검토해야 하나, 베트남 세무서는 해당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 거주자 판명을 위해 입국일이 표시된 여권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워크퍼밋/거주증의 발행유무와 상관없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베트남내 입국한 한국인 근로자는 베트남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정기세무조사시에 근로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기 위해 세무서는 회사의 파견자 체재비용 발행내역, 사택방문, 워크퍼밋 및 거주증/비자의 발행내역을 조사합니다. 세무서는 베트남 출입국사무소에 협조 공문을 요청하고 회사가 발행한 모든 근로자명단을 입수하는 사례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는 베트남 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개인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근로소득은 누진세율로 과세되며, 비근로소득은 단일세율로 과세됩니다.

거주자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비거주자는 베트남에서 근무하여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한해서 20% 단일세율로 과세됩니다. 단, 비거주자의 과세여부는 조세조약의 해당규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조세조약 규정은 한국근로자의 보수인 경우, 한배 조세조약 제 15조 1항 및 2항입니다. 동 제 1항에서 고용이 베트남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자는 베트남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조항으로 제 2항에서는 한국의 거주자가(본사로부터의 파견자)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 세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수취인이 어느 12월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채약국 안에 체재하고,
- 나. 그 보수가 타방채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 다. 그 보수가 타방채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1년내의 기간동안 183일 이상을 체재하는 개인은 베트남세법에 의거해 거주자로서 국적에 상관없이 베트남외 국가에서 발생하는 개인소득을 포함해서 베트남내에서 과세되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베트남에서 받는 근로소득 및 체재비용만을 포함하여 베트남에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만, 근로소득세 세무조사시 한국국세청이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의 제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인 183일 미만 체류자인 경우에도, 조세조약 제 15조 2항에 근거한 근로소득세의 베트남내 비과세가 아직 베트남 국세청에서 승인된 사례가 없습니다. 비거주자는 20%의 단일세율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유로 국내 대기업사가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모든 베트남내 상용목적으로 입국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관련세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근로자의 산업재해 시 손해배상 기준

법무법인 아세안 최지웅 변호사

jchoi@alfcounsel.com

甲사는 베트남 내 제조업을 영위 중인 한국투자법인이다. 최근 공장 현지직원 B의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어 B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였으나, B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회사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산업재해를 주장하면서 베트남 현지 병원에 입원 중이다. B는 甲사가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甲사를 베트남 관할 시성 노무당국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에 甲사는 B로 인한 해당 제조업체 공장 내 피해 사실을 근거로 하여 B를 적법하게 해고하고자 한다. 이 경우, B가 주장하는 피해가 입증된다고 가정할 시, 과연 甲사가 B에 배상하여야 할 베트남 현지법상 손해배상 금액의 기준은 얼마가 될 수 있는 지, 나아가 甲사는 B가 甲사에 입힌 피해를 근거로 현지 노동법상 해고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을 시 회사의 손해배상 금액 기준

베트남 노동법 제145조 3항 및 동법 제145조 4항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과실 없이 발생한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 근로자가 근로능력을 5%이상 상실한 경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비율로 보상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근로능력 상실률이 5~10%인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1.5개월분 이상을 보상하여야 하며, 근로능력 상실률이 11~80%인 경우, 10%를 초과하는 근로능력 상실률 1%당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0.4개월분을 가산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근로능력 상실률이 81%이상인 근로자 또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에게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30개월분 이상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의 경우 근로자는 상기 금액의 40% 이상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사용자(회사)는 관할 노동사회보훈당국과 협력하여 해당 산업재해 사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며 산업재해 조사 결과보고서가 관할 노동사회보훈당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점을 주지하여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 甲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B는 회사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주장하는 바, 입원 중인 해당 병원의 정식 진단서 발급을 통한 법적 주장이 가능할 수 있다.

한가지 주지하여야 할 점은 가사 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일 경우라 할지라도 상기 관련 법령 조문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베트남 노동법상 제한된 금액의 범주 내에서 B는 사용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베트남 내 한국투자기업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근로자가 사용자(회사)에 끼친 심각한 손해를 사유로 하는 해고 처분 시, ‘심각한 손해’의 기준

베트남 내 근로자를 해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요 중에 하나가 근로자로 인한 손해발생 즉, 손해금액 산정의 기준으로 볼 수 있다. 베트남 노동법 제130조 1항에 의거하여 손해금액이 해당지역 근로자의 10개월치에 해당하는 최저 임금의 합산금액 보다 낮을 경우 ‘심각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례로 돌아가자면, 甲사는 먼저 베트남 현지법인 자체 사내 규칙(internal regulation)을 베트남 노동법에 부합하는 범주 내에서 (i) 심각한 손해는 최저 임금의 10개월에서 15개월간 합산액에 상당하는 금액, (ii) 매우 심각한 손해는 최저 임금의 15개월간 합산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명확하게 한정하여 수정, 반영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와 별도로 베트남 내 사용자(회사)는 다른 어떠한 사유가 심각한 손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법에서 달리 위법으로 규율하지 아니한 자율적으로 특정할 수가 있으므로, 사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사내 규칙의 정비가 필요할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甲사는 사내 규칙상 ‘심각한 손해’의 범위와 정의를 내리지 않았던 경우에 해당되는 바, 근로자 B로 인한 피해규모 자체도 별도 제3자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수치화한 금액이 아닌 단순 주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ALF

법무법인 아세안

즉, 근로자 B의 근무 행태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은 충분한 사실이나, 甲사 또한 평소에 베트남 현지법인의 노무관리에 미흡하였던 점이 존재하며, 이와 같은 베트남 근로자들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내부 프로세스 및 법규 이해도가 결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베트남 내 한국투자기업들은 베트남 사업장 내에 안전교육, 노무관리에 더욱 더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비교적 근로자의 지위가 강하고 노동법 집행이 엄격한 국가 중 하나로 구분된다. 나아가, 한국과는 상당한 노동법규상 차이가 존재하며, 문화적 차이도 상당부분 존재하는 바, 한국에서의 노무관리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우를 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특히 심각한 산업재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회사 운영에도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끝>



베트남 남부 유망 투자지역 안내 - 동탑성

□ 동탑성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3,374km² • 인구: 1.7백만 명('19년) • 도시거주 비율: 19.06%
지정학적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탑은 메콩 삼각주의 13개 성들 중 하나이며, 메콩 삼각주내 동탑 무오이(Dong Thap Muoi) 지역 및 띠엔강과 하우강 사이의 지역에 위치해 있음 • 북쪽으로는 캄보디아의 프레이벙(Prey Veng)성, 남쪽으로는 빈롱(Vinh Long)성 및 켄터(Can Tho)시, 서쪽으로는 안장(An Giang)성, 동쪽으로는 롱안(Long An)성 및 띠엔장(Tien Giang)성과 접해 있음 • 남부 주요 경제 지역과 켄터-안장-끼엔장(Kien Giang)-까마우(Ca Mau)의 역동적인 경제권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켄터시와 호치민시 경제의 후방효과를 봄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띠엔(Tien)강을 가로지르는 까오랑(Cao Lanh)다리, 하우(Hau)강을 가로지르는 밤꽁(Vam Cong)다리는 2017년에 완공되어 동탑성과 메콩 삼각주 사이의 도로 교통 연결에 돌파구를 마련해 주었음 • 내륙항구: 띠엔-까오랑(Tan Cang-Cao Lanh) 항구, 띠엔-사덱(Tan Cang-Sa Dec) 항구는 5,000 DWT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으며, 연간 45만톤 규모를 통관시킬 수 있음
GRDP 성장률 / 1인당 G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대비 성장률: 6.52%('19년) • 성 1인당 GDP: US2,223 달러/년('19년)
경제규모 / 산업별 성장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수출액: US1,340,601 달러 / 총 수입액: US388,205 달러('19년) • 산업별 성장률: 공업/건설업(9.62%), 서비스업(7.78%), 농수산업(3.15%)
산업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건설업 45.23%, 서비스업 19.36%, 농수산업: 35.41%
노무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내 노동가능 인구: 70% ('19년) • 교육 후 고용 비율: 80% 이상 • 학교와 기업간의 연계 교육 후 고용 비율: 100%
최저임금('20년)	VND3,070,000=US134 달러(4급지)
외국인투자 ('19.9월 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탑성내 총 외국인투자는 32개 프로젝트 1.94억 달러 • (한국) 3개 프로젝트 총 2.66백만 달러



□ 투자환경

○ 접근성 및 물류인프라 (도로)

- ▶ 동탑성을 관통하는 많은 국도가 있으며 지금까지 성 전체에는 3,402km의 도로가 건설되어 있음. 그중에 4개의 장거리 고속도로(30, 80, 54, N2)가 총 241km, 18개의 성 도로가 총 353km, 중앙 정부가 관리하는 12개의 수로가 총 417km, 성이 관리하는 27개의 수로는 총 725km임. 최근 완공된 N2 도로는 동탑 무오이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까오랑(Cao Lanh) 다리 및 밤콩(Vam Cong) 다리는 동탑성의 경제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함
- ▶ 30, 80, 54번 국도를 포함하는 기존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음. 이와 함께 띠엔강을 가로지르며 동탑성의 중심을 관통하는 호치민 도로는 호치민시, 켄터시 및 메콩 삼각주의 다른 지방과 연결되어 있음
- ▶ 48km 길이의 캄보디아 국경과 인접해 있으며, 7개의 국경게이트 (투옹푸옥 (Thuong Phuoc) 및 딘바(Dinh Ba) 국제 국경게이트 포함)가 있음. 동탑성은 경제발전을 위해 국경 경제의 장점을 활용하여 투자에 주력하고 있음





(수로) 띠엔강과 하우강의 두 강 지류는 원활한 항해 시스템을 제공함. 띠엔강 기슭에 위치한 까오랑(Cao Lanh) 및 사덱(Sa Dec) 항구는 각각 5,000 DWT의 선박을 수용하여 동해와 캄보디아로 물품을 편리하게 운송 할 수 있음

(항만) 동탑성에는 아래와 같은 6개의 주요 항구가 있음:

- 사덱(Sa Dec) 내륙항구(5,000 DWT)
- 까오랑(Cao Lanh) 내륙항구(5,000 DWT)
- 찐꾸억또안(Tran Quoc Toan) 석유 항구(5,000 DWT)
- IDI 내륙항구(5,000 DWT)
- 찐꾸억또안(Tran Quoc Toan) 내륙항구(3,000 DWT)
- 바오마이(Bao Mai) 내륙항구(3,000 DWT)

○ **관광 및 자원**

- 수자원: 동탑성을 가로지르는 띠엔강의 남쪽에는 복잡한 운하 시스템이 있으며, 성전체에 걸쳐 염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연중 담수 공급원이 되고 있음

- 광물 자원:

- 매장량이 6,800만m³ 인 벽돌 제조용 점토
- 매장량이 5천만m³ 인 건설용 모래
- 매장량이 2백만m³ 인 토탄(석탄의 종류)
- 매우 큰 매장량의 세라믹 및 미술 도자기용 고령토

- 관광: 동탑성은 여러 웅장한 자연 경관과 귀중한 생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참찐(Tram Chim) 국립공원: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곳으로, 동탑 무오이 지역 생태 경관의 미니어처 모델이고 붉은 머리 두루미(red-crowned crane)의 서식지로 유명함. 또한 참찐 국립공원은 습지 자원에 대한 람사르 협약의 9개중 7개 표준을 달성했음
- 가오종(Gao Giong) 생태 관광 지역: 약 2,000ha에 달하는 멜라루카 숲, 15개 이상의 희귀한 조류 동지, 매우 풍부하고 다양한 수생 자원 존재



- ▶ 사텍(Sa Dec) 꽃마을: 피엔강 강가변에 위치하여 연중 시원한 바람이 불고 비옥하며 햇빛이 가득하여 수백 종의 이국적인 꽃들의 보고임
- ▶ 동탑성은 오랜 역사 및 역사적 유물을 가지고 있음. 고탓(Go Thap) 유적지는 5개의 역사적인 유물을 갖춘 국가 수준의 역사 및 문화 유적지임. 또한 베트남의 위대한 지도자인 호치민의 친부인 응웬신삭(Nguyen Sinh Sac)의 무덤 유적지가 까오랑(Cao Lanh)시에 있으며, 경건한 건축물로 여겨짐

○ 인센티브 지원 정책:

a. 산업단지 및 국경 경제 구역에 투자시 인센티브 정책

구분	투자지역, 분야	법인세/토지세	감면, 면제 기간	법적 근거
산업 단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투자시 (Hong Ngu, Tan Hong, Tam Nong, Thap Muoi현)	법인세 10년간 세율 17%	최초 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	의결서 218/2013/ND-CP (제 15.3조, 16.3조)
		토지 및 수면 임대료 면제 적용 사례: 산업 단지 인프라 개발 투자 프로젝트 (투자 유치 중) (Ba Sao, Song Hau, Hoa Tan, 확장된 Tran Quoc Toan 공단 포함)	기본 건설 중 토지 임대 면제(최대 3년). 그 후에 15년 면제	의결서 46/2014/ND-CP (제 19.2조, 19.3조)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역 투자시 (Thanh Binh, Cao Lanh, Lap Vo, Lai Vung, Chau Thanh현 등)	법인세 15년간 세율 10%	최초 4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	의결서 218/2013/ND-CP (제 15.1조, 16.1.a조)
		토지 및 수면 임대료 면제 적용 사례: 산업 단지 인프라 개발 투자 프로젝트 (투자 유치 중) (Truong Xuan-Hung Thanh 공단 포함)	프로젝트의 전체 기간 면제	의결서 46/2014/ND-CP (제 19.1.a조)
국경경제 구역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역에 속함	법인세 15년간 세율 10%	최초 4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	의결서 218/2013/ND-CP (제 15.1조, 16.1.a조)
		토지 임대료 면제	기본 건설 중 토지 임대 면제(최대 3년). 그 후에 건설 중 11~15년 면제/프로젝트의 전체 기간 면제(투자 분야에 따름)	의결서 35/2017/ND-CP (제 8.6조)



투자지역, 분야	수입세	감면, 면제 기간
고정자산 투자용 설비, 기계 수입 시	수입세 면제	
수출용 재화 생산용 원부자재 수입 시	수입세 면제	5년간
일반공단, 경제특구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투자 시	신용 대출 우대 적용	

b. 산업 단지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시 투자자를 위한 지원 정책

투자자는 산업단지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항목 건설비의 30%를 지원 받을 수 있으나, 신설 공단은 1,350억동/공단 이하, 확장된 공단은 750억동/공단 이하 (동탑성 인민위원회의 2019년 12월 7일자 의결서 제 296/2019/NQ-HDND호에 따름)

c. 산업단지 및 국경 경제 구역에 투자시 인센티브 정책

기업은 규정을 충족하면 노동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구체적으로는 초급 교육비 및 3개월 미만 교육비 승인에 대한 동탑성 인민위원회의 2019년 3월 27일자 의결서 제247/QD-UBND-HC호에 따름

□ 외국인 투자현황

○ 외국인 투자

2019년 9월 누계 동탑성 외국인투자는 총 32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1.94억 달러가 투자등록 되어있음. 그중 유효한 프로젝트 수는 23개이며 총 자본금은 1.76억 달러임.

2020년 연초부터 12월 17일까지 동탑성은 총 22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84.09백만 달러 이상이 투자등록 되어있음(2019년 동기 비해 10개 프로젝트 감소 및 자본금 282.2백만 달러 감소). 그 중 FDI 프로젝트 수는 3개이며, 초기자본금은 45.4백만 달러임(2019년 동기 비해 1개 프로젝트 증가 및 33.8백만 달러 증가).

○ 한국계 투자

2019년 9월 누계 한국기업의 투자는 총 3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2.66백만 달러가 투자등록 되어있음. 그중 유효한 프로젝트 수는 2개이며 총 자본금은 약 1.2백만 달러임.

순번	프로젝트명	투자국	투자금액 (US 달러)
1	까오랑 CGV 영화관 건설 및 사업	한국	1,005,000
2	롯데리아 까오랑 상점-동탑	한국	190,381



○ 동탑성 내 주요 투자 프로젝트

순번	프로젝트명	투자국	투자금액 (US 달러)
1	Khai Phat – Vietnam 플라스틱 공장	대만	40,000,000
2	동물 사료 공장	호주	33,000,000
3	첨단 돼지 사육 센터	호주	19,500,000
4	수산물 프로젝트	미국	13,470,000
5	수출용 신발 공장	베트남, 대만	10,000,000
6	수출용 신발 및 모자 공장	베트남, 대만	10,000,000
7	OCIALIS Vietnam 사료 및 수산물 공장	프랑스	7,114,000
8	Tongwei 동물 사료 공장	대만	5,000,000
9	수산물 가공	중국	4,743,000

□ 공단 현황

○ 공단 정보

순번	공단명	주요정보	투자자
1	Sa De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면적: 132ha 토지 임대료: 30-45 USD/m² (전체 기간) 입주율: 99.6% 	Dong Thap Housing & Industrial Zone Development Investment JSC
2	Tran Quoc To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면적: 180ha 토지 임대료: 30-45 USD/m² (전체 기간) 입주율: 99.38% 	Dong Thap Building Materials & Construction JSC
3	Song Ha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면적: 400ha 토지 임대료: 30-45 USD/m² (전체 기간) 입주율: 99% 	Docimexco JSC
4	Song Hau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면적: 150ha 	N/A
5	Song Hau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면적: 400ha 	N/A
6	Ba Sa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면적: 500ha 	Dong Thap Housing & Industrial Zone Development Investment JSC
7	Tan Ki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면적: 600ha 	Dong Thap Building Materials & Construction JSC
8	Truong Xuan - Tan Thanh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면적: 400ha 	N/A
9	High-te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면적: 250ha 	N/A



□ 투자 유망분야

- 첨단 농업
- 농업 공학
- 관광
- 수출용 섬유 및 신발
- 산업 단지, 산업 클러스터, 경제 구역 인프라
- 도시 인프라 및 사회 주택

□ 동탑성 투자유치기관 정보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동탑성 무역관광투자 촉진센터	Mr. Vo Quoc Dinh (실장 - 투자촉진 및 기업지원 부서)	Tel: +84-277-387-8388 Mobile: +84-976 268 179 Email: dinhvq.dongthaptrade@gmail.com Website: dotip.dongthap.gov.vn
동탑성 경제구역 관리위원회	Mr. Nguyen Duy Thanh (부실장 - 투자 및 건설관리 부서)	Tel: +84-277-387-8471 Mobile: 84-973 785 792 Email: bqlkkt@dongthap.gov.vn Website: dongthap.gov.vn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1988. 01. 01~2021 2. 20 기준 누계		2021. 01. 01 ~ 2.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국	8,992	71,402.65	35	122.91	1,051.44
일본	4,652	61,967.95	15	1,450.19	1,635.07
싱가포르	2,649	57,654.91	16	861.07	1,071.97
대만	2,799	33,760.42	6	14.9	85.28
홍콩	1,957	26,269.69	10	231.09	275.39
버진아일랜드(영)	869	22,210.97	2	4.2	61.47
중국	3,157	19,297.1	24	374.91	759.98
말레이시아	646	12,954.93	1	0.01	7.74
태국	604	12,608.96	1	6.33	79.51
네덜란드	375	10,507.99	1	80.61	98.24
미국	1,083	9,528.15	2	110.8	126.95
전체 합계	33,215	388,825.99	126	3,308.67	5,458.17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연번	구분	2021. 2. 20 기준 누계		2021. 01. 01 ~ 2.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5,202	229,081.77	76	1,341.05	3,040
2	부동산경영	948	60,748.06	7	392.52	484.73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154	30,017.27	3	1,409.44	1443.74
4	호텔, 외식서비스	891	12,518.79	1	0.22	21.06
5	건설	1,751	10,675.07	-	-	8
6	도소매, 유지보수	5,204	8,528.54	13	12.21	45
7	물류운수	880	5,501.67	4	107.56	113.12
8	채광	108	4,897.63	-	-	1.08
9	교육, 양성	589	4,412.98	4	0.88	29.07
10	정보통신	2,338	3,976.51	7	1.25	15
11	농, 임, 수산	506	3,779.19	1	7.65	69.72
12	예술 오락	138	3,391.52	-	-	0.25
13	기술과학전문	3,553	3,783.81	8	35.76	153
14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81	2,926.02	-	-	10.97
15	의료와 사회복지	153	1,999.82	-	-	0.31
16	행정, 지원 서비스	492	975.86	2	0.14	3.9
17	기타서비스	144	847.65			
18	금융, 은행, 보험	76	752.76	-	-	18.52
19	기타산업					
	합계	33,215	388,825.99	126	3,308.67	5458.17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구분	2018	2019	2020	2021.2
수 출	2,447.20	2,634.50	2,814.70	485.4
수 입	2,375.10	2,535.00	2,624.00	472.5
무역수지	72.1	99.5	191	12.9

자료원: General Statistics Office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8	2019	2020	2021.2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0,003	51,827	50,880	9,299
섬유/직물제품	30,447	32,571	29,478	4,761
전기전자제품/부품	29,446	35,591	44,668	6,893
기계/플랜트 및 부품	16,528	18,304	27,042	5,455
신발류	16,297	18,299	16,551	3,218
수산물	8,831	8,572	8,384	1,011
목제품	8,855	10,526	12,323	2,441
수송수단 및 부품	7,985	8,500	9,058	1,620
철강제품	4,558	4,160	3,035	603
채소	3,822	3,764	3,259	610
기 타	67,951	71,337	76,793	12,635
합 계	243,483	264,189	281,471	48,546

자료원: General Statistics Office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8	2019	2020	2021.2
전자제품 및 컴퓨터	42,501	51,550	63,973	10,859
기계/플랜트 및 부품	33,715	36,640	37,353	6,812
각종 전화기 및 부품	16,010	14,666	16,565	3,638
의류(원단)	12,914	13,329	11,802	1,858
철강제품	9,896	9,485	4,526	790
플라스틱 원료	9,097	9,012	8,323	1,588
유류제품	7,614	1,047	1,056	151
기타 금속	7,317	6,407	6,080	1,253
플라스틱 제품	5,906	6,526	7,238	1,309
직물 및 의류 원부자재	5,741	5,886	5,316	879
기 타	86,801	98.96	100,175	18,122
합 계	236,687	253,070	262,407	47,259

자료원: General Statistics Office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7	2018	2019	2020	2021.2
1	미국	41,608	47,526	61,347	77,077	13,829
2	중국	35,463	41,268	41,414	48,905	7,999
3	일본	16,841	18,851	20,413	19,284	2,966
4	한국	14,823	18,205	19,720	19,107	3,162
5	홍콩	7,583	7,955	7,156	10,437	1,797
6	네덜란드	7,106	7,076	6,881	6,999	1,191
7	독일	6,364	6,869	6,555	6,644	1,043
8	인도	3,756	6,542	6,674	5,235	1,093
9	영국	5,424	5,776	5,758	4,955	927
10	태국	4,786	5,494	5,272	4,917	871
	기타	77,115	79,161	82,999	79,095	13,865
	합계	213,770	244,723	264,189	282,655	48,743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7	2018	2019	2020	2021.2
1	중국	58,229	65,438	75,452	84,187	15,415
2	한국	46,734	47,497	46,935	46,895	8,399
3	일본	16,592	19,011	19,526	20,341	3,187
4	대만	12,707	13,228	15,173	16,701	3,119
5	미국	9,203	12,753	14,365	13,713	2,261
6	태국	10,495	12,023	11,656	10,968	1,909
7	말레이시아	5,860	7,450	7,291	6,575	1,285
8	인도네시아	3,640	4,918	5,703	5,382	950
9	싱가포르	5,301	4,524	4,091	3,670	657
10	인도	3,940	4,147	4,538	4,435	904
	기타	38,395	46,523	48,341	49,833	9,021
	합계	211,096	237,512	253,071	262,700	47,107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률%)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2
수출	47,749(46.3)	48,629(1.8)	48,178(-0.9)	48,543(0.8)	8,550(6.7)
수입	16,176(29.5)	19,632(21.4)	21,071(7.3)	20,579(-2.3)	3,727(11.5)
무역수지	31,573	28,997	27,107	27,964	4,823

자료원: KITA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7	2018	2019	2020	2021.2
반도체	9,235(101.9)	10,939(18.5)	10,730(-1.9)	11,501(7.2)	2,003(-4.9)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7,367(193.0)	8,909(20.9)	7,970(-10.5)	9,552(19.9)	1,780(42.1)
무선통신기기	3,286(-36.7)	2,632(-19.9)	2,933(11.4)	3,467(18.2)	564(3.0)
기구부품	2,612(57.7)	2,332(-10.8)	2,230(-4.4)	2,250(0.9)	377(-1.1)
석유제품	1,978(81.0)	1,980(-0.4)	2,194(11.0)	1,195(-45.6)	197(-19.6)
합성수지	1,442(19.8)	1,659(15.1)	1,624(-2.1)	1,615(-0.6)	326(18.0)
플라스틱 제품	1,152(54.9)	1,205(4.6)	1,210(0.4)	1,115(-7.9)	181(-13.4)
편직물	1,118(3.8)	1,106(-1.0)	996(-10.0)	851(-14.6)	125(-11.3)
철강판	985(20.1)	1,049(6.5)	1,158(10.4)	1,052(-9.1)	186(-4.1)
광학기기	794(81.7)	944(18.9)	946(0.2)	947(0.1)	137(-11.0)
기타	18,808	15,874	16,187	14,998	2,674
합계	47,749(46.3)	48,629	48,178(-0.9)	48,543(0.8)	8,550(6.7)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7	2018	2019	2020	2021.2
무선통신기기	3,964(26.0)	4,835(21.4)	5,691(17.6)	4,980(-12.5)	842(-4.5)
의류	2,874(17.4)	3,570(24.2)	3,646(2.1)	3,146(-13.7)	547(5.9)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604(976.6)	1,137(88.3)	1,197(5.2)	1,027(87.1)	51(-65.9)
신변잡화	797(24.2)	980(23.1)	1,053(7.4)	1,029(-2.2)	216(10.2)
목재류	511(19.4)	793(55.1)	657(-17.1)	632(-3.9)	127(29.8)
컴퓨터	560(1.4)	534(-4.6)	679(25.9)	1,270(87.1)	419(174.3)
기구부품	496(89.9)	445(-10.4)	512(15.1)	481(-5.9)	85(1.6)
산업용 전기기기	317(10.3)	416(31.1)	479(14.8)	574(20.0)	110(33.8)
반도체	374(203.7)	396(5.8)	471(19.1)	561(18.9)	83(-16.3)
영상기기	400(17.7)	329(25.6)	356(-2.0)	406(14.0)	83(30.7)
기타	5,279	6,197	6,330	6,473	1,164
합계	16,176(29.5)	19,632(21.4)	21,071(7.3)	20,579(-2.3)	3,727(11.5)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20~2021년 주요 경제지표 >

구분		시기	단위	국가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GDP증가율		2019년(연간)	%	0.7	5.9	4.3	5.02	7.02
		2020년(연간)	%	△5.4	△9.5*	N/A	△2.1	2.91
		2021년 1Q	%	4~6*	N/A	N/A	N/A	4.46*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19년(연간)	-	100	N/A	114.6	148.65	9.1
		2020년(연간)	-	N/A	N/A	N/A	147.1	3.4
		2021년 1월	-	N/A	△13.8	N/A	N/A	22.2
	구매관리지수 (PMI)	2019년(연간)	-	N/A	51.6	105.2	50.1	N/A
		2020년(연간)	-	N/A	N/A	N/A	44.7	N/A
		2021년 1월	-	N/A	52.5	N/A	52.2	51.3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2019년(연간)	-	100	N/A	86.2	124.3	N/A
		2020년(연간)	-	N/A	N/A	N/A	93.6	N/A
		2021년 1월	-	N/A	N/A	N/A	84.9	N/A
	소매판매	2019년(연간)	-	N/A	N/A	139.5	228.2	11.8
		2020년(연간)	-	N/A	N/A	N/A	198.5	2.6
		2021년 1월	-	N/A	N/A	N/A	N/A	6.4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19년(연간)	%	N/A	2.5	0.7	3.0	2.79
		2020년(연간)	%	△0.5~0	N/A	N/A	2.0	3.23
		2021년 1월	%	N/A	4.2	N/A	1.6	1.0
투자	고정자산투자	2019년(연간)	%	1.0	N/A	1.4	4.5	7.2
		2020년(연간)	%	N/A	N/A	N/A	△5.0	△25
		2021년 1월	%	N/A	N/A	N/A	N/A	△62.2
고용	실업률	2019년(연간)	%	2.3	5.1	3.3	4.7	1.98
		2020년(연간)	%	3.7	10.4	N/A	7.7*~9.2*	2.48
		2021년 1Q	%	N/A	N/A	N/A	7.7*~9.2*	N/A
무역	수출증가율	2019년(연간)	%	△4.2	1.5	△1.7	△0.9	8.1
		2020년(연간)	%	△3.2	△10.1	N/A	△2.2	6.5
		2021년 1월	%	1.1	N/A	N/A	12.2	50.5
	수입증가율	2019년(연간)	%	△2.1	△4.8	△3.5	△7.4	7.0
		2020년(연간)	%	△7.4	△23.3	N/A	△16.9	3.6
		2021년 1월	%	△5.2	N/A	N/A	△6.5	41.0

* 국가별 여건에 따라 해당 통계수치가 없거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N/A로 표기 / 전망치는 *표기

* 자료원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TRADE, Malays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



4. FTA 활용 지원 시스템



3

4



며칠 후

대기전자 건은 잘 처리됐어?

아 네 다행히 해당품목이 FTA협정상 무관세라서 바이어가 관세환급을 받으면서 기존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대요

그거 잘 됐고만

그나저나 예전엔 관세만 신경 쓰면 됐는데 이젠 각종 규제들로 이루어진 비관세 장벽들도 파악해야 되고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에휴..

그러니까...

그런데 또 얼마 전에는 알라알라국에서 환경보호 인증이 강화되었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그거 또 골치 아프게 됐네

응? 나리 넌 왜 한숨이야?

특정 선배...

방새워서 보고서 만들어서 최 이사님에게 제출했는데 통과가 안 됐어요

이 문제는 알라알라국에 있는 FTA 해외 활용지원센터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아서 해결했대요

아 맞다 FTA 해외 활용지원센터는 세계 주요 FTA 체결국에 있으니까

내용도 충실하고 잘 쓴 거 같은데

내가 한번 봐줄까?

이건 내용이 문제가 아닌데 내용은 아주 좋아

그렇죠

이건.. 일종의 비관세 장벽 같은 거라고 봐야 하나?

FTA 적용 및 통관법률 애로해소

FTA 활용지원

- ☑ 예상 HS CODE 확인
- ☑ 실제 관세 혜택 비교
- ☑ 원산지증명서/확인서 활용
- ☑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비관세 장벽이요?

최 이사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노안이 오셨거든

베트남 통관애로 접수 및 지원

- ☑ 통관 및 물류 관련 애로사항 접수
- ☑ 수입물품별 인허가 제도(수입요건) 안내
- ☑ 수출입관련 법령 확인
- ☑ EPE 수책관리, 임가공, 관세환급 등 상담

그러니까 최 이사님에게 제출할 보고서는 폰트 크기를 14로 해야돼

오 아주 훌륭해!

비관세 업무장벽 해소

KOTRA 하노이 무역관 내 FTA 활용지원센터
 참빛타워 20층 ☎ 024-3946-0511 (620)

김태윤 관세사 (국가공인 관세사) ✉ kty5714@kotra.or.kr
 STAFF (베트남어 상담) ✉ thanhtuanmc061283@gmail.com



4화

FTA 활용 지원 서비스 안내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FTA 관련 정보제공과 상담, 컨설팅, 교육·인력양성 사업과 시스템 보급을 지원합니다.

	주요지원내용	지원기관
정보제공·상담	- FTA 협정별 주요내용 - 수출 지원사업 정보 - 최신 FTA 뉴스 등	- FTA 정보포털 1380 콜센터
컨설팅	- 원산지관리 -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 사후검증 대비 - 비관세장벽 대응	- FTA 종합지원센터 - 지역FTA센터(17개소) - 차이나데스크(7개소) - 해외FTA센터(15개소)
교육·인력양성	- 업종별 FTA 활용 교육 - 대학교 정규과정 - 고용계약형 FTA 실무 인력양성(특성학교) - FTA e러닝	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생산성본부
시스템보급	- 원산지 관리 시스템 - 농수산 관리 시스템	- KTNET (FTA KOREA, FTA Agri) -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PASS)

이를 위해 국내에는 FTA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18개 지역 FTA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에는 KOTRA를 통해 15개의 FTA해의 활용지원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FTA 활용지원기관 현황

산업부

국내

- ① FTA종합지원센터
- ② 6개 지역 차이나데스크
- ③ 18개 지역FTA지원센터

해외

- ④ 15개 FTA해의활용지원센터 (KOTRA 무역관내)

KTNET(원산지 관리 시스템)

- ① 무역협회 본부내 설치(4실 39명: 정부·유관기관, 무협, FTA 전문가로 구성)
- ② 6개 지역 무역협회지부(수원, 고양, 대전, 대구, 부산, 광주)
- ③ 대한상의(11), 지자체법인(3), 무역협회(2), 지역단체(2) / 지역센터별 4~9명
- ④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다롄, 톈진),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인도(뉴델리, 첸나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태국(방콕), 필리핀(마닐라), 중남미(멕시코시티), 영국(런던)



지원기관 연락처

- 산업부 포털 사이트: FTA 전반 정보

홈페이지: www.fta.go.kr

- FTA 종합지원센터: 1380콜센터, 상담, 교육, 컨설팅

홈페이지: www.fta1380.go.kr / 전화: (국번없이) 1380

- 지역 FTA지원센터(전국 17개소): 상담, 컨설팅, 교육, 설명회

경기: 031-8064-1397

경기북부: 031-8065-1398

경기북서부: 031-995-7484

인천: 032-810-2835/6

부산: 051-990-7016

대구: 053-222-3105

광주: 062-350-5861

대전: 042-480-3044/3045

울산: 052-287-3060~1

강원: 033-256-3068

충북: 043-229-2720

충남: 041-539-4591

전북: 063-711-2046

전남: 061-288-3872

경북: 054-454-6603

경남: 055-210-3048

제주: 064-757-2164

경북동부: 054-274-2222~6

경기북서부: 031-995-7484

세종: 070-7780-2436

- 해외 활용지원센터: 활용 설명회 상담, 컨설팅 헬프데스크 이동상담



중국

베이징: (86-01)6410-6162 / 717132@kotra.or.kr

상하이: (86-21)5108-8771 / crystal.lee@kotra.or.kr

칭다오: (86-532)8388-7931 / zhouchunjia@kotra.or.kr

광저우: (86-20)2208-1610 / hbkim@kotra.or.kr

다롄: (86-411)8253-0051 / Alice717133@kotra.or.kr

톈진: (86-22)2329-6631 / gaoyuzhu@kotra.or.kr



베트남

하노이: (84-24)3946-0511 / kty5714@kotra.or.kr

호치민: (84-8)3822-3944 / rainaju27@kotra.or.kr



인도

뉴델리: (91-11)4230-6300 / yoons@kotra.or.kr

첸나이: (91-44)2499-7283 / d.shin@kotra.or.kr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62-21)574-1522 / anis@kotra.or.kr



태국

방콕: (66-2)035-1555 / dana719176@kotra.or.kr



필리핀

마닐라: (63-2)8894-4084 / thkim@kotra.or.kr



중남미

멕시코시티: (52-55)5514-3173 / shine@kotra.or.kr



영국

런던: (44-20)7520-5303 / mj.kim@kotra.or.kr

- KTNET: 원산지 확인서/증명서 발급(FTA-Korea, FTA-Agri)

www.utradehub.or.kr



주요기관별 베트남 특별입국 추진현황(3.19.기준)

<주베트남대사관·주호치민총영사관·주다낭총영사관, '21.3.22>

1 국내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공동
- (문의) 이메일: btsc@kita.net, 대표전화: 1566-8110, 홈페이지: www.btsc.or.kr
-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 1층 로비
- * 베트남(하노이-번동공항)은 4.9(목) 및 4.28(토) 예정이며, 격주단위 지속추진 중

2 베트남

* 주요 교민단체별 단체입국 현황이며, 각 여행사를 통한 개별입국은 제외

□ 하노이

주관기관	입국예정일 → 신청기간	문의처	비고
하노이코참	4.7(수)→ 3.24(수)까지 4.23(금)→ 4.9(금)까지 * 베트남 상황에 따라 지속추진	이메일: support@korchamvietnam.com 대표전화: 024-3555-3341	www.korchamvietnam.com 코참회원사 대상(원칙)
하노이한인회	4차(4.28 수) → 3.31(수)까지 * 매월 지속추진	이메일: koreahn2021@gmail.com 카톡: http://pf.kakao.com/p/HqRK 산청: http://naver.me/xFpjQ4D9	http://homepy.korean.net/~vietnamhanoi/www/
하노이 중소기업연합	16차(4.18 일) → 3.31(수)까지 17차(5.3 월) → 4.14(수)까지 * 격주단위 지속추진	이메일: info@kbizhanoi.com 대표전화: (한국) 070-5111-2872 카톡ID: kbizhanoi1, kbizhanoi2, kbizhanoi3	www.kbizvietnam.org

□ 호치민

주관기관	입국예정일 → 신청기간	문의처	비고
호치민한인회	11차(4.29 목 / 5.14 금) → 3.27(토)까지 * 베트남 상황에 따라 지속추진	이메일: hchiminh@korean.net 대표전화 : 028-3920-1610 카톡ID : hcmhanin	www.koreanhcm.org

□ 다낭: '21년 6월~7월경 추진검토(다낭한인회, 추후 공고)



베트남팀코리아 카라반 트어티엔후에성 방문행사

□ 행사개요

- 일자 : 4.15.(목)-16.(금)
- 장소 : 트어티엔후에성 Angsana Lăng Cô Resort Huế (숙박 무료지원)

<이용가능한 항공편>

- 출발비행편 : 4.15(목) 09:55-11:10 하노이시 → 후에시(VJ569)
- 도착비행편 : 4.16(금) 11:30-12:45 후에시 → 하노이시(VJ568)
- ※ 15일 당일 하노이 복귀시 (20:20-21:30 후에시-하노이시, QH1202) 이용가능

□ 참석대상

- 한국측 : 대사님, 공공기관, 경제단체, 관련기업 등 약 35명
- 베트남측 : 약 35명
 - 중앙정부(약4명): 외교부 지도부 및 외교부 동북아국 책임자 급
 - 후에성(약30명): 인민위원회 등 지도부 및 후에성 각부처 책임자

□ 일정

목요일: 4.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55 – 11:10 하노이시 → 후에시 이동(VJ569) - 11:10 – 12:10 후에시공항 → 숙소호텔 이동 - 12:10 – 14:30 체크인, 개별오찬 및 휴식 - 14:30 – 15:00 대사님, 트어티엔후에성 당서기 면담 - 15:00 – 18:00 트어티엔후에성과의 경제협력 증진 간담회 - 18:30 – 20:00 트어티엔후에성 주최 환영만찬
금요일: 4.16. (산업단지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30 – 08:00 체크아웃 - 08:00 – 09:30 트어티엔후에성 쩌마이 랑코 경제구역 방문 - 09:30 – 10:30 쩌마이 랑코 경제구역 → 후에시 공항 이동 - 11:30 – 12:45 후에시 → 하노이시 이동(VJ568)

□ 안내 및 신청방법

- 문의처 : (전화) 024-3946-0511(ext.531) (이메일) joara@kotra.or.kr
- 신청방법 : 기업명, 참석자, 숙박여부를 포함한 내용을 작성하여 joara@kotra.or.kr 로 회신 바람.
- 참고사항 : 1박 숙박비용 및 트어티엔후에성내 교통편은 트어티엔후에성에서 제공.
다만 항공편은 각자 예약하시기 바람.



베트남 CSR 전략설명회 개최

- 일시: 2021.4.20.(화) 9:30~12:30
- 장소: 롯데호텔 하노이, 6층 에메랄드 룸 (54 Lieu Giai, Cong Vi, Ba Dinh, Ha Noi)
- 참석자: 주요 투자기업 등 약 130명
- 참가신청: [클릭시 신청양식으로 이동](#)
- 주요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9:30~9:35(5')	개회사	이종섭 코트라 동남아대양주 본부장
9:35~9:40(5')	축사	박노완 주베트남 한국 대사
9:40~10:10(30')	베트남 CSR 사업의 주요 사례와 전략	굿네이버스
10:10~10:30(20')	코트라 글로벌CSR사업 주요성과 및 안내	코트라
10:30~10:50(20')	지방성 기반의 CSR사례	한국전력
10:50~11:05(15')	Coffee Break	
11:05~11:25(20')	코로나시대의 우수 CSR사례 발표①	포스코
11:25~11:45(20')	코로나시대의 우수 CSR사례 발표②	신한은행
11:45~12:05(20')	한국투자기업 공동CSR사례와 전략	코참
12:05~12:15(10')	신남방정책플러스와 CSR	코트라(협력센터)
12:15~12:30(30')	Q&A	



정책간담회 (자동차 부품)

- 일시: 2021년 4월 15일(목) 08:30~13:30 (한국시간 10:30~15:30)
- 장소: 롯데호텔 하노이 6층, 에메랄드홀(54 Lieu Giai, Ba Dinh, Ha Noi)
- 주최 : KOTRA, VIETRADE
- 참가자: 자동차(부품) 산업 관련업체
- 주요내용 : 산업발전정책(베트남 정부), 베트남 완성차업체의 개발전략, 우리기업 진출전략, 정책제안 등
- 프로그램 *한-베 순차통역으로 진행

시간(베트남 시간)	내용	연사
8:30 ~ 9:00	참가자 등록	
9:00 ~ 9:10	개회사	Mr. Vu Ba Phu VIETRADE 청장
9:10 ~ 9:20	환영사	이종섭 본부장 KOTRA 동남아대양주지역 본부
9:20 ~ 9:50	산업 발전 정책과 지원 방향	Mr. Pham Tuan Anh 베트남 산업청 부청장
9:50 ~ 10:20	전기차 개발전략과 정책제안	완성차 업체(Vinfast)
10:20 ~ 10:50	진출현황, 협력방안 및 정책제안	완성차 업체(현대타이콩)
10:50 ~ 11:20	자동차 소재시장, 우리기업 진출현황 및 발전전략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POSCO)
11:20 ~ 12:00	그룹 토론 및 정책제안	참가자 전원
12:00 ~ 13:30	오찬	현지 참가자

※ 참가신청 링크: <https://forms.gle/rhWdP1quNhCP7EV16>

※ 문의처: 코리아데스크

◎ 최동철 팀장 / dcchoi@kotra.or.kr / 093 4557363

◎ Ms. Tran Thu Quynh / thuquynh1124@kotra.or.kr / 094 7595626

◎ Ms. Nguyen Thi Nguyet Ha / hanguyen@kotra.or.kr / 098 1103280



편집 및 제작 :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협업 : 코트라 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84 24-3946-0511 joara@kotra.or.kr < 저작권자 © KOTRA >